■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31-550.
http://doi.org/10.17948/kcs.2023..100.531

‘탈북민은 직설적이다?’
—북한이탈주민 화법 논의에서 ‘직설성’의 의미 연구—

이주랑(李주랑)*

목 차

1. 서론
2. 연구 설계
3. ‘직설성’의 의미 유형
4. 문제점 및 원인 분석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탈북민은 직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직설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탈북민 언어에 관한 학계의 선행 연구와 탈북민 대상 언어 교육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이 개념은 ‘직설적 표현, 직설적인,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하면, 직접적으로 표현, 직접 화법’ 등 주로 ‘직설…’, ‘직접…’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논저에 따라 ‘직접 화행 사용’, ‘거침없는 의사 표현’, ‘명시적인 의사 표현’, ‘직접 경험한 것처럼 표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향을 뜻하였다.

이상의 다섯 가지 유형에는 문장의 형식에 관한 것과 내용에 관한 것이 섞여 있으며, 화자로서의 특성과 청자로서의 특성도 섞여 있다. 따라서 같은 사례도 어떤 유형의 직설성 논의이냐에 따라 직설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의미 유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문장을 상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위의 유형들은 단일 개념의 제 속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설적이라고 불릴 만한 속성을 일부 내포한 서로 다른 개념들이 그간 비슷한 외연으로 뭉뚱그려 표현되고 있었다고 진단한다. 탈북민이 직설적이라는 인식이 학계를 넘어 일선 현장의 교육 자료에까지 반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직설성’ 개념은 보다 엄밀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직설적, 직접 화행, 화법, 화행.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기획홍보부 대리.

1. 서론

탈북민의 언어를 다루는 논저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탈북민은 직설적이다'라는 것이다. 특히 탈북민 대상 언어 교육 자료에서는 이미 직설적 화법을 개선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직설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가? 그간의 자료를 살피다 보면, 소위 '직설성'[1]이라는 개념이 논저에 따라 상당한 의미 차이를 보임을 알게 된다.[2]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직설성이라는 개념이 논저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탈북민 교육 자료를 검토하여 개별 논저에서 직설성을 제각기 어떤 의미로 다루는지를 살피고, 그중 유사한 의미는 묶어서 유형화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직설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서와, 과연 현 상황에서 직설성을 합의된 단일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논할 것이다.

2. 연구 설계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밝히고, 3장에서는 다양한 논저에서 발견되는 직설성의 의미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 4장에서는 용어 사용 실태가 배태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과연 이제까지 개별 논저에서 직설적이라고 일컬어 왔던 특성들이 모두 같은 개념을 가리켜왔던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5장에서는 논의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한다.

본고에서 검토한 자료는 성격상 연구 논저와 실용 자료로 나뉜다. 전자는 학계의

---

1) 본고에서는 앞선 논저들이 '직설적 표현', '직설적인', '직접적으로 표현', '직접 화법' 등으로 표현해 온 모종의 특성을 우선 '직설성'으로 통칭하여 부르며 논의를 전개한다.

2) 본고와 같은 문헌 중심 연구는 아니지만, 인터뷰 연구에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주랑・양수경의 논문에서는 탈북민 접촉 현장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하였는데, 이때 연구 참여자들이 직설성의 의미를 서로 달리 생각한다는 점이 포착되었으며, 더 나아가 현장에서 인식하는 직설성의 의미와 학계에서 연구하는 직설성의 의미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주랑・양수경, 「탈북민 화법에 대한 현장의 인식 연구」, 『사회언어학』 27(4), 한국사회언어학회, 2019, 197-221면. (직설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특히 212-218면 참고.)

연구 자료이고, 후자는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것과 남북 출신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 교육 자료 중에서 동영상 형태로 된 것들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 연구자가 내용을 받아 적어 수록하였다.[3]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설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으로는 (1)과 같은 것들이 있었으며, 그 반대말 혹은 반대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으로는 (2)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4]

(1) 직설적 표현,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하면, 직설적인, 직접적으로 지적, 직접적으로 표현, 직접적인 거절, 직접 화법

(2) 간접 화법, 간접 화행, 간접적으로 표현, 간접적인 거절,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우회적 표현, 완곡 표현, 완곡한 거절

이처럼 직설성은 주로 '직설…', '직접…'이라는 유사한 형태로 표현된다. 반면 직설성의 반대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직설성'의 의미 유형

1) 유형 1: 직접 화행 사용

직설성의 여러 의미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직접 화행 사용 경향이다. 이런 논저들에서는 분석 대상인 탈북민의 말을 화행(話行, Speech Act)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때 화행은 행위로서의 말, 즉 힘을 갖는 발화(發話, utterance) 정도로 이해된다.[5] 화행은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으로 나뉘는데, 그중 직접 화행은 발화의 목적과 발화된 문장의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6] 만일 직장 상사가 '4시에 회의실을 예약하라'는

3) 영상 자막과 음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음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4) 어떤 개념 자체의 정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더러 '무엇의 반대'로 인식되느냐를 통해서도 의도하는 의미가 밝혀질 수 있기에 (2)도 함께 제시하였다.
5) Yan Huang, 이해윤 옮김,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125-130면.

지시를 한다면, 발화 목적이 '지시'이므로 '명령문' 형식의 문장을 사용해야 직접 화행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3)
ㄱ. 4시에 회의실 예약하세요.
ㄴ. 4시에 회의실 예약해 줄래요?
ㄷ. 4시에 회의실 좀 써야 할 거 같아요.

이 경우, 위의 세 문장 중에서 명령문 형식인 (3ㄱ)만 직접 화행이다. 의문문 형식의 (3ㄴ)과 평서문 형식의 (3ㄷ)은 간접 화행으로 분류된다.

본고에서 이처럼 문법 용어인 직접 화행을 직설성의 의미 유형을 분류하는 데 사용한 이유는, 탈북민이 직설적인 근거로서 직접 화행을 사용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탈북민의 구어(口語)가 화행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화행 이론을 접목하는 경우 발화를 직접 화행 또는 간접 화행으로 양분하기 쉬우며, 이런 틀에서 탈북민의 말이 직설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탈북민이 주로 직접 화행을 사용한다는 것이 된다.

직설성과 화행 이론을 연계한 사례로서, 먼저 양수경・권순희의 논문[7]을 들 수 있다. 해당 연구는 탈북민 면담을 통해 남북한의 화법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인데, 그 결과 남북한 화법의 대표적 차이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바로 '간접 화법'이다.[8] 위 논저에서 간접 화법은 '완곡 표현'과 '간접 화행'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간접 화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9]

---

6) 같은 책, 136-149면.
7) 양수경・권순희,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2007, 459-483면.
8) 해당 연구에서 남북한 화법의 대표적인 차이로 지적한 것은 '화법관', '간접 화법', '남녀 화법'이다(같은 글, 464면). 그중 간접 화법은 '의도하는 내용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관련된 다른 표현으로 돌려 말하는 화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같은 글, 467면).
9) 같은 글, 467-472면. 완곡 표현에 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4)[10]

간접 화행은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 원래 표현 내용과 다르게 문장 유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 좀 닫아 줘”의 내용을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의문의 간접 화행을 택한 것이다. 간접 화행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거절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좀더 예의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면담 결과, 새터민들은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말, 즉 명령이나 요구를 할 때 주로 자신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비해 남한인들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 줄래?”나 “○○해 주면 좋겠다”, “○○하면 어떨까요?” 등의 요청하고 부탁하는 투의 표현은 북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들한테는 “○○해”, “○○해라”같은 직접 명령하고 지시하는 투의 말이 좀 더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4)에서는 간접 화행을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책이자 공손한 태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탈북민들은 이런 표현 방식에 익숙지 않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탈북민 대상 언어 교재에서 직접 화행을 간접 화행으로 고치는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교재(이하 ‘국립국어원 교재’)[11]의 마지막 장에서는 요청, 거절, 칭찬, 감사, 사과 화행을 정리하고 있는데,[12] 그중에서도 특히 요청 화행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직접 화행을 간접 화행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연습 활동을 담고 있다.

(5)[13]

1. 왼쪽에 보여 주는 직설적인 요청 표현을 아래와 같이 좀 더 공손하고 정중하게 표현해 보세요.

문 좀 열어 주시오.

---

10) 같은 글, 470-471면.
11) 권순희 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2』, 도서출판 하우, 2013.
12) 같은 책, 192-211면.
13) 같은 책, 193면.

→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나 이것 좀 도와줘.
→ 나 이것 좀 도와줄래?
밑에 떨어진 볼펜 좀 주워 주시오.
→ 죄송합니다만, 밑에 볼펜 좀 주워 주시겠어요?
밑에 떨어진 볼펜 좀 주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떨어진 볼펜 좀 주워 주세요.
야, 나 급하니까 빨리 인터넷 뱅킹으로 빌려간 돈 보내.
→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빨리 인터넷 뱅킹으로 빌려간 돈 보내 주면 좋겠어.

(5)에서 '직설적인 요청 표현'은 모두 직접 화행이고, 이것을 다듬은 표현은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접 화행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간접 화행을 사용하는 것이 직설성을 완화시키는 장치로 인식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직설성은 간접 화행보다는 직접 화행을 사용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간접 화행으로 분류된 문장이라 하더라도 직설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에서 간접 화행으로 분류되었던 (3ㄴ)과 (3ㄷ) 사이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3)
ㄱ. 4시에 회의실 예약하세요.
ㄴ. 4시에 회의실 예약해 줄래요?
ㄷ. 4시에 회의실 좀 써야 할 거 같아요.

화자의 요청 사항이 (3ㄴ)에서는 문면(文面)에 바로 드러나는 반면, (3ㄷ)에서는 단지 암시될 뿐이다. 그렇다면 문법 용어인 '직접 화행'을 모르는 경우, 오히려 (3ㄱ), (3ㄴ)을 직설적인 요청으로 생각하고, (3ㄷ)을 간접적인 요청이라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는 화행 이론을 통해 탈북민의 직설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직설성의 유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유형 2: 거침없는 의사 표현

다음으로, 직설성을 거침없고 솔직한 의사 표현 경향으로 본 경우가 있다. 이런 성향이 특히 유표적으로 드러나는 맥락은 주로 남한 토박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바로 말하지 않을 법한 상황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면전에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직설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살펴본 〈유형 1〉이 발화된 문장의 형식에 관한 것이라면 이 유형은 발화의 내용에 관련된 특성인 셈이다.

일례로 ‘남북하나재단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하 ‘남북하나재단 매뉴얼’)[14]을 살펴보자. 이 자료에서는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의 상호작용에서 자주 벌어지는 갈등 사례를 네 가지로 유형화한 뒤 하나씩 소개하는데,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의사소통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다.[15] 이때 의사소통 차이로 부각하는 것이 바로 탈북민의 직설성으로, 제시된 PPT 자료에서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부제가 ‘외래어와 우회적 표현 vs. 직설적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16]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17]

(6)[18]

ㄱ. 남한주민은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하면 당황해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참아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ㄴ. 북한말에 ‘난 발라맞추는(비위 맞추는) 거 못해요’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상대방 듣기 좋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걸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

14) 황봉연 외, 『남북소통 이야기—남북하나재단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0.
15) 같은 책, 9면.
16) 같은 책, 92면.
17) 남북하나재단 매뉴얼에서 직설성의 사례로는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같은 책, 102면), 상대방의 사생활에 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같은 책, 106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같은 책, 108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고는 이처럼 직설성의 범주 안에 포함된 이런 다양한 의미를 해체하여 독립된 유형으로 나누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절에서는 여러 사례 중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향에 관련된 언급을 주로 인용하였다.
18) 같은 책, 108면.

(6)에서는 남한 토박이와 탈북민의 소통방식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탈북민은 '상대방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반대로 남한 토박이는 상대방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 남한 토박이는 "상대에게 잘못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 있고 실례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19] 이를 종합하면 이 논저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상대가 당황할 만한 내용도 참지 않고 '대놓고' 말하는 성향이 곧 직설적인 것으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남북하나재단의 영상 자료[20]에도 나타난다.[21] (7)은 영상에서 다룬 갈등 사례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대학교 조별 발표가 끝난 뒤 발표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를 칭찬하는 남한 토박이와, 발표자를 지적하는 탈북민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7)[22]
ㄱ. 남한 학생 1: 제법인데? 너무 잘했어. 최고최고.
남한 학생 2: 오빠, 완전 멋있던데요.
ㄴ. 탈북 대학생: 야,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오늘 발표 엉망진창이었어. 중요한 걸 다 빼먹었잖아. 시간도 널널했는데. 게다가 뭘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남한 토박이 학생들 역시 발표자의 발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럼에도 발표한 학생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것을 면전에서 지적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유형의 직설성은 기본적으로는 거침없는 의사 표현 경향을

19) 같은 책, 108면.
20) 친절한 하나씨(남북하나재단), [한국생활은 처음이지] 사회시스템이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유튜브, 2019.3.18., https://youtu.be/m5l2Fw4BYZg(2023.5.17. 검색).
21) 남북하나재단 매뉴얼에서는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 수료 이후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시행착오들을 담은 교육용 영상 10편을 제작"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수강생들이 사회통합교육 참석 전에 미리 시청하도록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황봉연 외, 앞의 책, 65면). 따라서 이 영상 자료는 남북하나재단 매뉴얼과 연계된 교육 자료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22) 친절한 하나씨(남북하나재단), 앞의 영상.

가리키나, 그중에서도 특히 남한 토박이라면 즉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법한 상황에서 탈북민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유표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유형의 직설성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직설성은 문형을 바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앞 유형에서의 직설성은 직접 화행을 간접 화행으로 바꿈으로써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에서 남한 출신 대학생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예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 유형의 직설성은 상대방이 불편해할 내용은 그대로 두고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내용의 언급 자체를 삼감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다.

3) 유형 3: 명시적인 의사 표현

다음으로,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경향을 직설성으로 본 경우가 있다.

먼저 국립국어원 교재[23]에 수록된 ‘거절하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8)[24]

ㄱ. ‘거절하기’에는 직접적인 거절과 간접적인 거절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거절은 “아니요, 싫어요, 됐어요, 괜찮아, 필요 없어, 곤란해.”와 같은 표현이 중심이 됩니다. 간접적인 거절은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기, 그 상황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과거나 미래에 수락하기, “어떻게 하지요?”와 같은 표현을 통해 난처함을 나타내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ㄴ. 윗사람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표현을 한 뒤,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지금 좀 바빠서요.” 등과 같이 거절에 대한 사유를

23) 권순희 외, 앞의 책.
24) 같은 책, 195면.

> 밝히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또 오세요.” 등과 같이 나중을 기약하는 방식으로 거절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위 논저에서는 사유를 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절은 ‘간접적인 거절’이며, 명확하게 거절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거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논저에서의 직설성이란 곧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학계의 논저 중에서는 양수경의 논문[25]에서 유사한 관점이 드러난다. ‘명시적인 거절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를 ‘직접 거절’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간접 거절’로 보기 때문이다.[26] 이때 명시적 거절 표현이란 ‘괜찮다’, ‘됐다’, ‘일없다’, ‘안 된다’, ‘못 한다’, ‘곤란하다’ 등을 가리킨다.[27] 또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유 설명’, ‘사과’, ‘양해 요청’, ‘유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절은 간접 거절로 보았다.[28] 따라서 이 논저 역시 직설성을 명시성과 연계하여 판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이 유형의 직설성은 곧 명시적인 의사 표현 경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직설성의 반대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다른 방식으로 내비치는 성향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유형 4: 직접 경험한 것처럼 표현

직접 화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직설성이라고 한다면, 직설성이 ‘직접 겪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전영선・김지니의 논문[29]에서는 ‘북한의 언어문화 특성’을 ‘명시성 강조’,

---

25) 양수경, 「남북한 거절 화행 비교 연구」, 『한말연구』 43, 한말연구학회, 2017, 147-172면.
26) 같은 글, 159면, 163면.
27) 같은 글, 159면, 163면.
28) 같은 글, 159면, 163면.
29) 전영선・김지니, 「북한의 언어 정책과 대중매체를 활용한 언어 교양 사업」, 『북한학보』 44(1), 북한연구소・북한학회, 2019, 153-189면.

'직접 화법 중심', '명령어 중심의 언어'로 제시한 바 있다.[30][31] 아래에서 그중 '직접 화법'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자.

(9)[32]

ㄱ. 북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직접 화법을 쓰면서 간접적인 경험도 직접적인 경험인 것처럼 말한다.

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처럼 직접 말한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써 놓은 북한 책을 읽고 그거를 자기 걸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 화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9)에서 '직접 화법'은 마치 직접 경험한 듯이 말하는 화법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는 북한 주민의 특성이자 탈북민의 특성으로 기술되어 있다. 해당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 논저에서는 한 기획 좌담[33]의 일부를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위 논저에서 인용한 기획 좌담은 '남북 공통성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하여 남북교류협력 실무 경험자들이 느낀 남북 생활문화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한 것으로,[34] 그중 일부를 본고에서 다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0)[35]

그런데 만나서 면담을 하실 때 꼭 고려해 두셔야 할 게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아까 '직접화법을 쓴다'라고 했죠. 들은 적이 있다,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 직접화법입니다. 본인이

30) 같은 글, 169-172면.

31) 한 심사위원께서 이 논저에서 말하는 '명시성'이 본고의 〈유형 2〉에 해당함을 지적해 주셨다. 해당 논저의 '명시성 강조' 항목에서 불편한 내용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경향(본고의 〈유형 2〉)과 의례적인 인사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경향(본고의 〈유형 5〉)을 다루고 있으므로 타당한 지적으로 사료된다(같은 글, 169-171면). 이렇듯 논저에 따라 같은 특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본고의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32) 같은 글, 171면.

33) 정진아 외, 「기획 좌담 : 남북 공통성의 이론과 실제」, 『통일인문학논총』 5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7-55면.

34) 같은 글, 7면.

35) 같은 글, 52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써 놓은 북한 책을 읽고 그거를 자기 걸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오류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에서 '이분들'은 맥락상 탈북민을 지칭한다. 즉 위의 좌담에서도 탈북민은 직접 화법을 사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때의 직접 화법 역시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표현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 화법'이라는 표현은 어떤 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화법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이 경우, 직접 화법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발화 내용의 사실 관계, 현실과의 일치 여부까지가 고려의 범위가 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5) 유형 5: 문자 그대로 이해

마지막으로, 타인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직설성으로 본 경우도 있다. 앞의 유형들은 탈북민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유형은 탈북민이 타인의 말을 듣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직설성의 근거로는 주로 탈북민이 타인의 완곡 표현이나 인사치레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제시된다.

일례로 앞서 살펴본 양수경・권순희의 논문[36]에서는 탈북민들이 "완곡한 거절을 알아듣지 못하고 의례적인 인사말로 건네는 말을 곧이곧대로 알아듣"는 경향을 언급하고 있다.[37]

(11)[38]
완곡 표현은 듣기에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충격을 주는 등 좋지 않게 들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어감을 완화시키는 표현이다. 남한인들은 상대방에게 거절을 해야 할 때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나 그거 못해" 하는 대신

36) 양수경・권순희,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2007, 459-483면.
37) 같은 글, 470면.
38) 같은 글, 468면.

>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싫어”, “안돼”, “못해” 식으로 거두절미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고려해보자”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당장의 거절을 피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친숙한 인간관계에서라면 위 정도의 표현으로서 완곡한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은 안다(곽단양, 2006). 그러나 면담 결과, 새터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다음에 연락할게요”와 같은 의례적인 인사를 진지하게 듣고 연락을 기다렸다거나, “생각해 볼게요”같은 완곡한 거절을 못 알아듣고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논저에서 ‘완곡 표현’도 ‘간접 화법’의 일부로 다루었다는 점에서[39] 이 역시 탈북민이 간접 화법에 익숙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듯 상대방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에 관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교재[40]에도 포함되어 있다.

> (12)[41]
> 남한에서는 헤어질 때 연락하겠다거나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은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않는 경우, 헤어질 때 하는 ‘빈 인사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는 말이라기보다 별 뜻 없이 상대의 인사에 응답하기 위해 하는 말인 것입니다.
>
> (13)[42]
> 상점이나 미용실과 같이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업종에서는 과도한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 “손님, 옷이 아주 잘 어울리세요. 딱 손님을 위한 맞춤옷 같아요.”

(12)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13)에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의 칭찬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남북하나재단 매뉴얼[43]에 수록된 PPT 자료에도 “다음에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라는 말을 들은 탈북민이 정말로 연락을

39) 같은 글, 467-470면.
40) 권순희 외, 앞의 책.
41) 같은 책, 28면. 밑줄 역시 원문에 포함되어 있다.
42) 같은 책, 198면.
43) 황봉연 외, 앞의 책.

기다리다가 먼저 밥을 먹자고 해 놓고 왜 연락을 하지 않느냐며 화를 내는 상황이 표현되어 있다.[44] 이 역시 탈북민이 타인의 발화가 직설적이지 않은 경우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직설성은 탈북민이 화자라기보다는 청자일 때, 상대방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형의 직설성 논의에서 탈북민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곤 한다는 '상대방의 말'의 종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2)의 '연락하겠다'거나 '밥 한 번 먹자'는 표현은 이미 어느 정도 관습화된 표현인 반면, (13)의 "손님, 옷이 아주 잘 어울리세요. 딱 손님을 위한 맞춤옷 같아요."라는 예시는 그 자체로 관용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될 여지가 있다.

만일 후자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다룬다면, 탈북민이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직설성과 관련지어 볼 수도 있다. 자신이라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 상대방도 그러리라고 기대한다는 식의 추론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고에서 분류한 〈유형 2〉나 〈유형 3〉과도 관련지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자와 같은 표현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을 탈북민 직설성의 근거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용 표현을 충분히 접해보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문제점 및 원인 분석

1) 미합의된 개념이 초래하는 문제

본고에서 파악한 '직설성'의 의미는 다섯 가지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직설…', '직접…'과 같이 유사한 외연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논의의 장에서 여러 가지 혼선을 야기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중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바로 직설적이라는 것이 문장의 '형식'에

44) 같은 책, 94면.

관한 평가인지 '내용'에 관한 평가인지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형 1〉에서 중요한 기준은 형식이다. 가령 '지시'하는 문장이 직접 화행인지를 판별하려면 그 문장이 '명령문'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므로, 문형이 직설성 판별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 반면, 〈유형 2〉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하는 경향을 직설성으로 보는 경우, 직설성의 판단 근거는 문장의 내용이다. 〈유형 4〉도 내용에 관한 문제인데,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화법이라고 한 것이므로 이 경우 직접 화법이냐 아니냐는 문장의 내용과 그것의 사실 관계가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현 상황에서는 직설성 여부를 형식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한 연구에서 정합적인 연구 절차를 통해 '탈북민은 직설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할지라도, 다른 연구에서 다루는 직설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명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설성이 화자로서의 특성을 가리키는 경우와 청자일 때의 특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섞여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유형 1~4〉는 모두 탈북민이 말하는 사람인 경우를 상정한다. 그런데 〈유형 5〉는 탈북민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민은 직설적이다'라는 명제는, 탈북민이 직설적인 메시지를 생산해 낸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직설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같은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상대방의 말이 직설적이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단순히 아직 배경지식이 부족해서인지도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화자로서의 탈북민과 청자로서의 탈북민에 관한 제보가 모두 '직설성'이라는 표지를 향하고 있으며, 이 역시 관련 논의의 사적(史的) 이해에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3장에서 살펴본 직설성의 다섯 가지 유형에 표시해 보면 아래 도식과 같다.

〈그림 1〉 직설성의 의미 유형 분류



이상으로 직설성이 문장의 형식을 가리키는 경우와 내용을 가리키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며, 누군가가 직설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화자로서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인지 청자로서의 특성을 가리키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만약 연구자가 외연이 비슷한 '직설…', '직접…'류의 표현에서 이와 같은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직설적이다'라는 표현을 해당 논저의 의도와는 다른, 자신이 생각하는 직설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왕 수행된 연구의 결과가 용어 문제로 오독의 소지를 내포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합의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이 연구를 사적으로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2) 현재의 '직설성'은 단일 개념인가

이제부터는 과연 지금까지 '직설성'이라 칭하면서 논의해 온 모종의 개념이, 3장의 모든 특성을 포함하는 하나의 개념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먼저 직설성이 하나의 큰 상위 개념이되 세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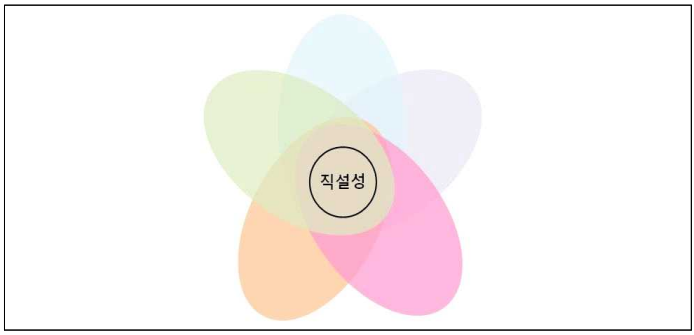
으로 3장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의 속성을 갖는다는 관점과, 사실은 여러 개의 개념이었다고 보는 관점을 상정하고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직설성이 하나의 상위 개념이며,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의미 유형은 이 개념의 제 속성들이라고 이해한다. 이런 견지에서라면 여러 의미 유형이 난립하는 상황도 광의의 한 개념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직설성은 단일 개념이고, 그것이 가진 다양한 속성들이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유형으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의미 유형 중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가장 직설적인 어떤 사례'를 떠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거침없이 의사를 표현하되 직접 화행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표현하되 명시적인 표현을 포함해야 하는 등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예시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상기 의미 유형들은 단일 개념의 제 속성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독립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3장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의미 유형은 한 개념의 제 속성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다른 여러 개념으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즉 '직접 화행 사용', '거침없는 의사 표현', '명시적인 의사 표현', '직접 경험한 것처럼 표현', '문자 그대로 이해'라는 경향은 모두 다른 개념인데, '직설…', '직접…'과 같이 표현될 만한 가능성을 조금씩 포함하고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비슷한 외연을 공유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직설성으로 표현될 만한 요소를 가진 여러 개념



본고는 이처럼 서로 다른 개념들이 대체로 비슷한 외연으로 나타나다 보니 한 개념인 듯한 착시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독자가 어떤 논저를 접했느냐에 따라서 직설성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거나, 논의의 장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서 '탈북민은 직설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서로 다른 개념은 고유한 용어로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해당 개념을 가장 쉽게 나타내는 방식이 '직설…', '직접…'류의 표현이라서 이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개별 논저 차원에서 조작적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탈북민이 직설적이다'라는 생각은 학계의 논의를 넘어 일선 현장의 교재에도 반영되고 있으나, 과연 직설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합의되지 못한 듯하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개념은 논저에 따라 각각 '직접 화행 사용', '거침없는 의사 표현', '명시적인 의사 표현', '직접 경험한 것처럼 표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향을 의미했다. 이는 한 개념의 제 속성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직설…' 내지는 '직접…' 형태로 유사하게 표현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형사 '직설적'의 뜻을 '바른대로 말하는'이라고 풀이하고 있다.[45] 이런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진 제보를 받았을 때, 연구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외연이 비슷한 학술 용어에 바로 대응시키기보다 제보의 진의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것, 가장 적절한 용어를 찾아내려는 시도와 사용하는 표현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 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학계의 몫일 것이다. '직설성'은 지금보다는 더 엄밀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4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2023.6.29. 검색, 검색어: 직설적).

▮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2023.6.29. 검색).
권순희 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2』, 도서출판 하우, 2013.
양수경・권순희,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2007, 459-483면.
양수경, 「남북한 거절 화행 비교 연구」, 『한말연구』 43, 한말연구학회, 2017, 147-172면.
이주랑・양수경, 「탈북민 화법에 대한 현장의 인식 연구」, 『사회언어학』 27(4), 한국사회언어학회, 2019, 197-221면.
전영선・김지니, 「북한의 언어 정책과 대중매체를 활용한 언어 교양 사업」, 『북한학보』 44(1), 북한연구소・북한학회, 2019, 153-189면.
정진아 외, 「기획 좌담 : 남북 공통성의 이론과 실제」, 『통일인문학논총』 5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7-55면.
친절한 하나씨(남북하나재단), [한국생활은 처음이지] 사회시스템이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유튜브, 2019.3.18., https://youtu.be/m5l2Fw4BYZg(2023.5.17. 검색).
황봉연 외, 『남북소통 이야기—남북하나재단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0.
Yan Huang, 이해윤 옮김,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Abstract】

Are North Korean Defectors Straightforward?
: A Study on the Meanings of North Korean Defectors' Blunt Speaking

Lee, Ju-R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what exactly is meant by *jikseoljeok* (직설적, commonly translated as 'straightforward' or 'blunt') in a common aphorism 'North Korean defectors are straightforward'. To do so, I have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both academic studies on North Korean languages and language teaching material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s a result, the meanings of *jikseoljeok* were identified in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1) Using direct speech acts 2) Making outspoken comments 3) Speaking explicitly 4) Speaking as if one has experienced something firsthand 5) Taking others' words literally. This reveals that the concept of *jikseoljeok* has been used without a specific agreement.

This situation causes problems of clarity. Does *jikseoljeok* refer to characteristic of the form of speech or the content of the speech? Are North Korean defectors actually speaking bluntly or is it that they are not capable of understanding the other party when not spoken bluntly? Given that it's hard to come up with a straightforward sentence that satisfies several of the above definition types simultaneously, it is not so accurate to say that *jikseoljeok* is one concept that encompasses all these five attributes. Rather, it is more like different concepts containing a few properties of straightforward are all lumped together under the expression, *jikseoljeok*. As a result, meaning of the statement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jikseoljeok*' is in a state of confusion. It create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apply the results of one study to another. As imprecise usage of the term *jikseoljeok* has been found, it has come to our attention that defining its meaning more strictly when it comes to discussing North Korean defectors' speech is at its utmost necessity.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 Straightforward, Direct Speech Act, Speech, Speech Act.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5.

* Assistant Manager, The Joint Board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